

지역 매 아 리

박성일 완주군수

“폭염, 우기 대비 피해 예방 최선”

박성일 완주군수는 3일 “이른 더위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폭염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장마에 대비해 우기 전에 관련 사업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피해 예방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이날 오전 청원 월례조회와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폭염과 장마 대비를 강조한 후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의 등 다각적으로 폭염과 장마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평균기온 상승으로 심각한 폭염이 예상돼 아이스 팩과 부채 비치 등 시위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운영하고 여름철 우기에 대비한 각종 사업장의 안전사고 지도점검과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 군수는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인 만큼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교육

김제시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김제시는 3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교육을 통하여 2019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사용하는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전산교육과 감사담당으로부터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시설) 감사에 따른 사례 설명과 회계서류 보완 및 서류 안내,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의 추경확보에 따른 수요 및 11월까지 연중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던 바 수행기관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푸드플랜 구축 부서 간담회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최근 김제시 푸드플랜(로컬푸드) 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부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부서 간담회에서는 먹거리유통과가 중심이 되어 푸드플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의 방향을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농산물 확대 및 기획생산, 농산물 안전성 관리 등 관련 연계사업을 검토·분석하기 위하여 부서별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문화전령사 역할 할 계획”

완주군, 이서면 ‘수상한공동체’ 아파트 르네상스 첫 협동조합 탄생

완주군 아파트 르네상스를 통한 첫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완주군은 이서면 에코르3단지 아파트 공동체인 ‘수상한공동체’가 수상한공동체 협동조합으로 첫발을 내딛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이서면 에코르3단지 아파트 르네상스에 공모하기 위해 구성된 수상한공동체는 그동안 프로그램 통한 주민소통과 문화프로그램 및 축제를 기획해왔다.

지난 2016년부터 책가비 할로윈축제를 개최했으며, 2018년도에는 문체부 지원 ‘2018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신규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2500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올해도 연속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역 내에서 활발한 문화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상한공동체는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유튜브를 통한 네트워크와 문화·축제 기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 모두가 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자질과 역량을 갖춰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



이서면은 아파트 르네상스를 통한 첫 협동조합으로 에코르3단지 아파트 공동체인 ‘수상한공동체’가 올해도 연속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영상을 제작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전달해 마을의 문제점과 대안까지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마을과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민회합과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주 대표는 “아파트 르네상스를 통해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협동조합까지 조직하게 됐다”며 “유튜브를 비롯한 문화기회를 통해 아파트와 마을, 마을과 지역을 연결하는 문화전령사 역할을 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쌍둥이 새내기 초등학생 “공부방 생겼어요”

완주군, 신협중앙회 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

초등학교에 입학한 쌍둥이 아동들이 깨끗한 공부방을 얻게 됐다.

완주군은 지난달 신협중앙회 후원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돼 드림스타트 아동가정의 집안을 정리하고, 도배와 장판을 새롭게 교체했다.

또한 150만원 상당의 2층 침대와 책걸상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았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소재인 한지를 활용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완주군의 드림스타트

대상 1가정이 3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또한 전북신협순수모아봉사단이 함께 참여해 집안 정리 정돈, 쓰레기 수거 등 가정내의 청소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아동가정에 지원된 한지벽지는 자율적 조습능력을 통해 최적의 습도를 조절하고 포름알데히드 제거 등 유해물질 저감으로 쾌적한 실내공간을 유지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2층 침대와 책상이 있는 자신들의 방을 본 아동들은 “정말 좋다”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아동의 조모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더 기분이 좋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 관계자는 “아동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신협중앙회는 봉사활동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돼 드림스타트 아동가정의 집안을 정리하고, 도배와 장판을 새롭게 교체하고 2층 침대와 책걸상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았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도내 기관들 견학 이어져

김제시,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자립 지원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 유호열)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30명의 장애인에게 보호적 환경안에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작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해내리 물티슈에 대한 위생과 최저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이 많이 알려져 도내 대학과 기관 들의 견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2일 익산 소재 해바라기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9명과 5월 3일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

학과생 10명과 지도교수, 5월 30일 부안장애인복지관 장애청소년 21명이 기관견학을 통해 근로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현장과 해내리 물티슈 작업장에 대한 소개를 통해 자신감 회복과 사회복지 현장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유호열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은 “근로장애인들이 물티슈를 관측용(1매, 10매, 20매, 30매)과 다매용(72매, 80매)으로 구분해서 생산하고 있으며 무자극과 향균을 인증받는 등 안전과 위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해내리 물티슈작업장에 익산 소재 해바라기 주간보호센터, 한일장신대학교 등 도내 대학과 기관 들의 견학이 이어지고 있다.

김제 문화재 야행 자문위원회 첫 시동

김제시는 최근 김제문화재 야행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김제문화재 야행은 8월 10, 11일 양일간에 걸쳐 김제군 관아와 향교 및 성산공원과 전통시장 일원을 무대로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프로그램으로 야심차게 구성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전국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신규 진입한 4개 지자체중 김제시가 포함된다 있으며 2억원의 사업비 또한 확보하여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바 있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문화재야행이 일반 축제와의 차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특징과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김제 시민의 경쟁력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시행된 것이다.

자문위원은 4명으로 김제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선유 김제 문화원장과, 각종 문화재 돌봄사업과 활용사업으로 문화재의 관리와 활용의 노하우를 지닌 예원대학교 문화재 관리학과 정경미 교수, 전국국악경연대회 대동령상과 국제콩쿨 1위로 실력을 인정받고 전통음악감독으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권민정 동리문화사협회 음악감독, 김제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토무용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서승아 퍼포머가 위촉되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은 “김제 문화재 야행이 처음 시도되는 만큼 자문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야행은 조연이 필수적이며, 대행사 와 공무원이 합심하여 전국을 대표 하는 야행사업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Advertisement for Maserati cars. Features a blue Maserati sports car, a man in a suit (representative), and promotional text: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Includes contact info: '대표전화 : 1600-2542' and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